

안동 하회구곡

우리나라 최고의 전통 마을에 조성된 구곡 원림

낙동강변의 강마을인 하회마을은 안동에서도 손꼽히는 반촌(班村)이요, 선비 마을이다. 따라서 하회마을 일대에 경영된 하회구곡을 유람하게 되면 하회마을의 자연과 역사, 문화, 인물들에 대해 저절로 알게 된다. 낙동강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마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우리의 전통마을인 하회마을에 설정된 하회구곡으로 떠나보자.

흔히 안동을 ‘선비의 고장, 충절의 고장’이라 한다. 맞는 말이다. 누가 뭐래도 안동은 우리나라 으뜸으로 꼽을 수 있는 충효(忠孝)의 고장이다. ‘인다(人多) 안동(安東)’이라는 말은 충효를 모범으로 삼을 인물이 많이 난 곳이라는 뜻이다. 이 또한 부정할 수 없는 말이다. 또 최근에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는 자부심으로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날갯짓을 하는 중이다. 이 역시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낙동강변의 하회마을은 이런 안동에서도 내로라하는 반촌(班村)이요, 선비 마을로서 ‘안동 중의 안동’이라는 대접을 받고 있는 전통마을이다.

안동시 풍천면 낙동강변에 자리한 하회마을은 현재 풍산 류씨들이 모여살고 있는 전통 마을이다. 태백 검룡소에서 발원(조선시대에는 태백의 황지가 공인)한 낙동강은 이곳에 이르러 여러 번 크게 휘돌아 가는데, 하회(河回)는 ‘물이 빙 돌아나간다’는 뜻으로 ‘물돌이동’이라고도 한다. 풍수지리에선 백두대간에서 뻗어온 지맥인 화산(321m)과 낙동정맥의 지맥인 부용대를 낙동강이 감싸고 돌아가므로 산태극 수태극의 길지로 보았고, 물에 연꽃이 떠있는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의 명당이라고 여겨왔다. 자루에 곡식을 가득 넣고 조금 동여맨 형세로 보기도 한다.

하회마을은 ‘허씨(許氏) 터전이요 안씨(安氏) 문전(門前)에 류씨(柳氏) 배반(胚盤)이라’는 전설이 전해 온다. 허씨, 안씨, 류씨가 차례로 들어왔는데, 류씨들이 입촌하여 점차 번성하게 되자 허씨들이 한두 집 떠나고 안씨들이 뒤를 이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하회마을은 류씨 집성촌으로 자리 잡으면서 대촌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갔다. 풍산 류씨들은 하회에 자리를 잡은 지 얼마 안 돼 벼슬길이 열렸다. 중종 대에 입암(立巖) 류중영(柳仲郢, 1515~1573)은 과거에 급제한 뒤 벼슬이 관찰사에 이르렀다. 류중영은 두 아들을 두었는데 바로 겸암(謙菴) 류운룡(柳雲龍, 1539~1601)과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이다.

겸암과 서애는 모두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의 가르침을 받은 고제(高弟, 학식과 품행이 뛰어난 제자)로서 영남학파의 거봉이 되었다. 겸암은 진사시에 합격한 후 과거를 포기하고 도학 공부에 주력하다가 벼슬길에 나가서는 인동현감(仁同縣監)·광흥주부(廣興主簿)·한성판관(漢城判官)을 역임했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서애의 간청으로 윤허를 받고 귀향하여 가족을 이끌고 피난했다. 서애는 1566년 별시문과에 급제 후 벼슬길에 올라 1592년 임진왜란에 도체찰사로 군무(軍務)를 총괄했고, 영의정이 되어 왕을 호종(扈從)해 평양에 이르렀으나 나라를 그르쳤다는 반대파의 탄핵을 받고 면직됐다. 의주에 이르러 평안도 도체찰사가 되었고, 이듬해 이여송과 함께 평양을 수복했다. 서애가 지은 《징비록(懲毖錄)》은 임진왜란을 겪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절실하게 담겨 있는 명저로 꼽힌다.

2010년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이름을 올린 하회마을은 우리 전통 문화유산의 보고다. 우선 전체가 중요민속자료(122호)로 지정된 마을 안에는 하회탈 및 병산탈(국보 제121호), 서애 류성룡의 《징비록》(국보 제132호) 같은 국보가 보관돼 있다. 보물만 해도 류성룡종손가문



부용대에서 내려다본 하회마을. 이 경관을 감상하지 않고는 하회마을을 봤다고 말할 수 없다.

적(보물 제160호), 서애와 관련된 여러 유물들(보물 제460호), 풍산 류씨의 대종택으로 6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양진당(입암고택, 보물 제306호), 서애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덕을 추모하여 건립한 충효당(보물 제414호) 등이다. 뿐만이 아니다. 민속자료로 지정된 전통가옥들은 열 손가락으로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즐비하다. 또 하회별신굿탈놀이(중요무형문화재 제69호) 같은 흥겨운 춤판과 선유줄불놀이 같은 낭만적인 놀이에선 이 마을에 살던 이들의 문화적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하회마을은 이런 유·무형 유산과 물돌이동이란 지형이 어우러져 세계에 자랑할 만한 우리나라 최고의 전통 마을을 만들어낸 것이다. 하회마을의 아름다움은 '하회 16경(河回十六景)'으로 잘 알려져 있다.

우리가 돌아볼 하회구곡(河回九曲)은 겸암 류운룡의 후손인 남옹(楠翁) 류건춘(柳建春, 1739~1807)이 하회마을 물돌이동 주변에 설정한 구곡원림이다. 류건춘이 하회구곡을 언제 경영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가 지은 <하회구곡시>가 《남옹유고(楠翁遺稿)》에 실려 전한다. 류건춘의 <하회구곡시>는 이전이 여느 구곡시와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우선 보통 구곡시에서는 <무이도가>를 차운하는데, 류건춘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자신이 운을 정해 시를 지었다. 또 프롤로그 격인 서시(序詩)를 앞에 배치하지 않고, 합곡시(合曲詩)라 하여 에필로그 형

식으로 맨 뒤에 배치했다. 물길을 따라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오며 설정한 것도 특징이다.

제1곡 병산

한국 건축사의 백미로 꼽히는 병산서원

하회구곡의 시작은 병산서원(屏山書院, 사적 제260호)이다. 하회마을 상류의 강가에 위치한 병산서원은 한국 건축사의 백미(白眉)로 꼽히는 서원. 이곳에는 임진왜란의 위기에 국난을 극복한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 그리고 아들 수암(修巖) 류진(柳珍, 1582~1635)을 모시고 있다.

병산서원은 비교적 늦은 조선 후기 1863년(철종 14)에 병산(屏山)이라는 사액(賜額)을 받았는데, 몇 년 뒤인 1868년(고종 5) 대원군에 의해 서원철폐령이 내려졌을 때 안동에서 도산서원과 함께 겨우 화를 면했다. 당시 겸암의 후손이 올린 상소를 본 대원군이 병산서원 훼손을 철회했다는데, 이는 대원군이 서애를 특별히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전해온다.



하회구곡의 첫째 굽이인 병산. 병산서원의 만대루에 앉으면 낙동강 너머로 솟은 병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병산서원은 배산임수의 앗음새를 하고 있다. 뒤에는 하회마을의 주산인 화산(花山, 321m)이요, 앞에는 휘돌아가는 낙동강 물줄기다. 화산의 부드러운 품에 안겨 있으면서 그 앞으로는 새하얀 백사장을 적시고 흐르는 서원 풍경은 빼고 더할 게 없는 풍경으로 사랑받는다. 여기에 하나를 더 갖추고 있다. 그건 바로 낙동강 너머에 솟은 병산(屏山)이다. 병산서원을 잘 아는 이들은 병산서원의 앗음새를 제대로 보려면 정문격인 만대루(晩對樓) 마루에 앉아 강 너머의 병산과 안쪽의 강당을 바라봐야 한다고 귀뜸한다. 류건춘은 제1곡 병산(屏山)을 노래한다.

낙동강 근원 있는 물이 동쪽에서 흘러내리고(洛上源流出自東)
 병풍바위의 우뚝한 절벽이 그 안을 에워쌌네(巖屏峭壁抱其中)
 구름 낀 병산에 서원 서니 강이 섬처럼 둘러(雲屏作院江環島)
 일곡이라 이름난 터에 버드나무 나부끼누나(一曲名基柳樹風)



병산서원은 원래 풍산 류씨의 자제를 교육하기 위한 서당인데, 서애가 세상을 떠난 뒤 서원의 격을 갖추었다.

근원 있는 물이라 함은 이곳이 하회구곡의 원두(源頭)임을 의미한다. 낙동강이 동쪽에서 흘러와 원두를 휘돌아 가는데, 그곳을 또 병산이 에워싸고 있다. 시선을 좀 더 좁히면 강이 섬처럼 둘러싼 그 안에 서원이 들어섰고, 그 서원에는 버드나무가 나부낀다. 매란국죽(梅蘭菊竹) 사군자도 아니요, 늘 푸른 소나무도 아닌 버드나무(柳)는 영남학파의 맥을 이루고 있는 하회마을의 풍산 류씨를 비유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제2곡 남포

나무꾼 노랫소리 들리던 섯다리

병산서원과 하회마을을 잇는 고갯길을 넘는다. 그 옛날 주민들도 이 길로 병산과 하회마을을 넘나들었을 것이다. 현재 이곳은 ‘안동 유교문화길’ 제2구간으로 조성돼 있는데, 병산서원~하회마을은 대략 십리(4km)에 이르니 짧은 거리는 아니다. 고개를 넘어 언덕길을 다 내려오면 하회마을을 키워낸 눈이 눈앞으로 펼쳐지기 시작한다. 갈림길에서 왼쪽 강변길로 가면 강 너머 남쪽으로 작은 마을이 보인다. 이 지점이 바로 제2곡인 남포(南浦)다.

하회마을의 아름다움 열여섯을 정한 하회16경에서 아홉 번째는 남포홍교(南浦虹橋)라 하여 ‘남포로 건너는 나무의 무지개다리’를 말한다. 예전에 하회마을에서는 매년 가을 이곳에 섯다리를 놓았다. 그 다리가 ‘무지개다리’라는 의미를 지닌 홍교(虹橋)다. 섯다리는 시간이 지나면 붉고, 푸르고, 갈색으로 변해간다. 그래서 홍교라고 했다.

이곳의 섯다리는 제법 장관이었다. 강폭이 길면서도 단단한 모래톱이 쌓여 좋았다. 류건춘의 부친은 하회16경을 읊은 시에서 특히 눈 내리는 날 멀리서 보면 가장 좋다고 하면서 천 길 되는 흰 무지개가 강에 걸린 듯하다고 묘사하고 있다. 류건춘의 제2곡시 남포(南浦)를 들어 보자.

오리의 긴 시내가 포구 남쪽으로 흘러가는데(伍里長溪關浦南)
 운무가 반쯤 걷혀서 삼필봉이 드러나 보이네(烟雲半捲筆峯三)
 중류에는 나무꾼 피리소리 홍교에 이어지는데(中流樵笛連橋路)
 이곡이라 두견화가 푸른 남기 속 빼어나구나(二曲鶉花秀碧爐)

류건춘은 병산서원을 뒤로 하고 둘째 굽이인 남포에 이르렀다. 하회 들판이 보일 무렵 드리워졌던 운무가 걷히면서 삼필봉이 드러났다. 그쪽에서부터 들려온 나무꾼의 피리소리가 섯다리로 이어지는 것으로 봐서 삼필봉은 마늘봉(蒜峯, 361m)을 지칭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뽕죽하게 모습을 드러낸 마늘봉은 생김새가 마치 마늘과 같다는 데서 지어진 이름으로 만



하회구곡의 둘째 굽이인 남포. 하회마을 남쪽에 있어 얻은 이름인데, 이곳으로 긴 쇠다리가 놓여 있었다.

은봉(晚隱峯)이라고 한다. 붓을 닮았다 해서 문필봉(文筆峯)이라고 부르는데, 하회마을에서 뛰어난 학자가 많이 나온 것도 풍수지리로 보면 문필봉 덕분이라 한다. 삼필봉을 배경으로 저녁나절 번지는 푸르스름한 이내 속에 붉은 두견화가 피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가.

제3곡 수림

상봉정 감싸 안은 나지막한 언덕

낙동강 물길은 제2곡인 남포를 지나면 하회마을을 끌어안고 시계방향으로 크게 휘돌아 간다. 서쪽 제방에 서 있는 세 그루의 느티나무 아래 강변에서 보면 강 너머 물가에 나지막한 언덕이 하나 눈에 들어온다. 하회구곡의 제3곡인 수림(水林)이다. 남포에서는 1.7km 하류 지점이다.

수림에는 상봉정(翔鳳亭, 경북문화재자료 제559호)이라는 작은 정자가 안겨 있다. 하회16경의 하나인 수림낙하(水林落霞)는 '수림에 떨어지는 노을' 경치를 말한다. 또 하회16경에서 상봉정 벼랑의 그윽한 풍광을 도잔행인(道棧行人, 잔도로 지나가는 나그네)으로 묘사하고 있다. 류성룡의 호(號)이기도 한 서애(西厓)는 상봉대 아래쪽 벼랑을 말하는데, 아쉽게도 도로를 확포장하면서 훼손돼 옛 모습을 찾기 어렵게 됐다.



하회구곡의 셋째 굽이인 수림은 상봉정 뒤의 나지막한 언덕 숲을 말한다.

노을 속 오리 나는 빛이 물 서쪽에 비단 같은데(霞鶩飛光錦水西)
 갈고리처럼 연결된 돌 잔도는 천제에 닿았구나(鉤連石棧接天梯)
 세찬 물결 속의 지주석 바위 높다랗게 서 있는데(頽波砥柱高巖立)
 삼곡이라 흰 모래밭에 기러기떼가 내려앉는구나(三曲明沙落雁低)

류건춘은 수림에 이르렀다. 때마침 저녁노을이 깔릴 무렵이었던가. 청둥오리가 비단 같은 물결 위를 날아 서쪽의 그 노을 속으로 사라졌다. 정자 앞으로 갈고리처럼 연결된 잔도는 천제, 즉 하늘로 오르는 사다리에 닿아 있었고, 세차게 굽이치는 물결 속에 지주석이 굳세게 버티고 있었다. 이때 셋째 굽이의 경관을 마무리하듯 기러기떼가 새하얀 모래톱으로 내려앉았다. 한 폭의 풍경화 같은 정경이 아닐 수 없다.

제4곡 겸암정

류운룡이 학문하며 제자 가르치던 정자

수림 앞에서 물길을 따라 500m 내려간 곳, 부용대의 상류 쪽 숲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자 하나가 숨어있는 듯 살짝 보인다. 제4곡인 겸암정(謙巖亭)이 안겨 있는 겸암정사(謙菴



하회구곡의 넷째 굽이인 겸암정. 하회마을에서 강 건너의 겸암정을 바라본 풍경이다.



부용대에서 내려다본 강둑의 만송.

精舍, 중요민속자료 제89호)다. 겸암정은 1567년 봄 겸암 류운룡이 세워 학문을 닦고 제자를 기르던 서당인데, 강변의 짙은 숲에 둘러싸여 있어 마을 쪽에서는 낙엽진 겨울 한 철을 제외하고는 그 모습을 잘 볼 수 없다. ‘겸암정(謙菴亭)’이란 현판은 겸암의 스승인 퇴계의 친필. 겸암이 이 정자를 짓자 퇴계는 현판 글씨를 써주며 “그대가 새 집을 잘 지었다는데(聞君構得新齋好) / 가서 같이 앉고 싶지만 그러질 못해 아쉽네(欲去同牀恨未如)” 하고 노래도 했다.



퇴계 이황이 쓴 겸암정 현판.

굽어보니 푸른 물결 부딪혀 역류하며 흘러가는데(瞰泉衝波逆折流)
 하늘거리는 바위틈 대나무들 정자 옆에 서 있네(漪漪巖竹立樓頭)
 낚시 바위는 보였다 말았다 여울 소리는 오열하니(漁磯出沒鳴灘咽)
 사곡이라 선조의 정자 십경에 들기에 손색이 없네(四曲先菴十景稠)

수림을 지나온 류건춘은 겸암정에 이르렀다. 푸른 강물이 거세게 휘돌아 흘러가는 바위틈의 대나무 사이로 정자가 보였다. 겸암정에서 그 아래 강가로 약간 가파르지만 짧은 길을 몇 십 보 내려서면 예상 밖으로 제법 평평하고 아늑한 낚시바위가 있다. 그 바위 아래까지 물이 찰랑거리니 낚시대 드리우기는 제격이 아닐 수 없다. 류건춘은 대숲 아래의 너른 바위에 앉아 낚시대 드리우고 조용히 사색하던 겸암을 떠올렸다.

하회16경의 하나인 반기수조(盤磯垂釣)는 ‘겸암정 앞 물가 바위에서의 낚시질 경치’를 말한다. 겸암정사 앞 강물 가운데 떠있는 아담한 바위 두 개를 형제바위 또는 입암이라 부르는데, 이는 입암청창(立巖晴漲, 형제바위에 흐르는 맑은 물)이라 하여 하회16경의 제1경으로 쳐주었다.

제5곡 만송

겸암이 강둑에 소나무 심은 뜻은

제5곡 만송(萬松)은 겸암정사 맞은 편, 즉 하회마을의 강둑을 덮고 있는 솔밭을 말한다. 하회마을은 북서쪽이 다른 방향에 비하여 비교적 나지막하게 열려 있는데, 풍수지리로 보

면 하회마을에서 이곳이 허(虛)하다고 한다. 이에 겸암 류운용이 허한 기운을 보완하기 위해 1만여 그루의 소나무로 비보(裨補) 숲을 조성한 것이다. 부용대 절벽이 너무 거칠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심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여기에 있던 만송정(萬松亭)은 겸암의 정자였으나 갑술년(1934) 대홍수 때 이곳까지 물이 넘치면서 허물어졌다. 그렇지만 겸암이 조성한 숲밭은 후대까지 남아 하회마을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또 하나의 대표 풍경이 되었다. 하회16경에서는 송림제설(松林霽雪)이라 하여 ‘만송정 숲에 눈 개인 경치’를 말한다. 류건춘은 만송을 노래한다.

강의 반은 솔 그늘이 드리 묶인 배를 덮는데(江半清陰覆繫船)
 삼동에는 눈이 덮이고 봄에는 봄기운을 띠네(三冬雲蓋帶春咽)
 꾀꼬리와 학의 울음소리 바람결에 뒤섞이는데(流鶯老鶴渾風瑟)
 오곡이라 서리 맞은 단풍이 적벽 앞에 붉구나(五曲霜桐赤壁前)

류건춘이 만송에 들어섰을 때 솔숲이 드리운 그늘은 강변에 있는 배를 덮고 있었다. 삼동에는 얼어붙은 얼음장 위로 눈이 덮여 있더니, 봄이 되니 강안개가 자욱하게 피어났다. 이때 솔숲에서는 꾀꼬리도 울고 학도 울어댔다. 그런데 가을이면 서리 맞아 붉은 단풍이 강 건너의 부용대 벼랑을 단장한다. 류건춘은 이렇듯 오곡 만송에서 즐길 수 있는 사계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

제6곡 옥연

부용대 그림자 비치는 옥빛 연못

제6곡 옥연(玉淵)은 만송 숲밭 맞은편에 보이는 부용대 아래의 못이다. 조선시대에는 이곳 옥연 아래쪽으로 나루터가 있어 부용대 강변을 왕복했다. 지금도 하회마을에서 부용대를 오고 가는 나룻배를 운행하고 있다. 높이 70m의 높다란 벼랑인 부용대(芙蓉臺)는 하회마을 최고의 전망대다. 부용대가 없었다면 낙동강이 휘돌아가는 하회마을의 그 풍광을 어찌 한눈에 담을 수 있겠는가.

말년에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온 서에는 옥연 위에 지은 옥연정사(玉淵精舍, 중요민속자료 제88호)에서 임진왜란 회고록인 《징비록(懲毖錄)》을 저술했다. 임진왜란 1년 전 권율과 이순신을 천거했고, 임금을 호종하면서 국난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서어가 정계에서 은퇴해 저술한 《징비록》은 임진왜란을 겪은 반성의 기록문이다. 징비(懲毖)는 ‘지난 잘못을 경계하여 삼간다’는 뜻. 《시경(詩經)》의 ‘내가 그 잘못을 경계해 후환을 미리 삼가하리



우쪽 숲은 부용대 아래의 옥연은 하회구곡의 제6곡이다.



하회구곡의 제5곡 만송(萬松). 부용대의 거친 모습을 가리기 위해 조성한 것이라 한다.



옥연 강변에 세운 옥연정사. 서애 류성룡은 이곳에서 임진왜란 회고록인 《징비록》을 저술했다.

라(予其懲, 而毖後患)’라는 구절의 징(懲), 비(毖) 두 글자를 따온 것이다.

옥연 일대에는 하회16경이 여럿 모여 있다. 마암노도(馬巖怒濤)는 말바위 부딪치는 성난 물결이요, 도두횡주(渡頭橫舟)는 옥연정 앞강을 건너는 배 구경이요, 적벽호가(赤壁浩歌)는 ‘부용대 앞 뱃노래 경치’, 강촌어화(江村漁火)는 ‘강마을 고기잡이배의 불빛 경치’를 일컫는다.

백 길의 부용대가 옥처럼 맑은 물에 비치니(百丈芙蓉玉映河)
 푸른 절벽 끊어진 곳에 물소리가 요란하네(蒼崖斷處水聲多)
 나루 입구에서 맞이하고 돌아갈 때 전송하니(相邀渡口旋相送)
 육곡이라 능파대에서 뱃노래가 들리는구나(六曲凌波棹是歌)

류건춘은 옥연을 바라보았다. 옥빛의 맑은 수면에는 높고 가파른 부용대가 비치고 있었다. 가파른 벼랑에는 강물이 흘러와 부딪치는 소리가 요란했다. 강 건너에서 손님이라도 왔던 걸까. 나루터에서 올 때 마중하고 갈 때 배웅하는데, 능파대에서는 어부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나룻배 오고가는 옥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림 같은 풍경이 눈에 선하다.

제7곡 도포

강물에 떠있던 섬 속의 나루터는 어디에

낙동강 물길은 부용대 벼랑에 부딪쳐 옥연에 머문 뒤 방향을 동쪽으로 바꿔 흘러간다. 이내 물길은 산을 만나 다시 방향을 서쪽으로 바꾸는데, 류건춘이 노래한 제7곡 도포(島浦)는

옥연 하류에 있었던 섬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금은 지형이 변해 섬을 확인할 수 없지만 주민들은 옥연 아래에 작은 섬이 있었다고 말한다.

강 모서리의 한 조각 외로운 섬 푸르는데(一片江陰覆繫船)
 지나가는 나그네 그림자가 백사장에 길구나(飄飄行客影長汀)
 깊은 가을 누런 숲은 손바닥처럼 평평한데(高秋黃林平如掌)
 칠곡이라 농부들 노랫소리 원근에 들리네(七曲農謠遠近聽)

강물이 급하게 휘돌아 흐르는 물굽이에 외로운 조각 섬 하나. 세월이 오래돼 그곳에 푸 나무라도 자랐는지 제법 푸른 기운도 띠고 있었다. 마침 지나가는 나그네의 그림자가 하얀 백사장에 길게 이어지고 있었다. 계절은 가을이 깊어 숲은 노랗게 물들고, 수확을 마친 농부들이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뜬에 울려 퍼졌다. 아마도 그건 풍년가였을 것이다.

제8곡 화천

낙동강 푸른 물은 한 송이 꽃을 품고 흐르네

낙동강은 자신이 적시고 지나가는 강마을에서 이따금 다른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하회 주민들은 화산 앞으로 흐르는 물이라 해서 따로 화천(花川)이라고 불렀다. 하회마을의 지명유래를 살펴보면, 하회마을을 달리 부르는 지명 가운데 이화촌(梨花村)이 있다. 옛날에는 마을에 배나무가 많아서 늦은 봄이면 배꽃으로 온 마을이 하얗게 뒤덮였기 때문에 마을의 다른 이름이 이화촌이고, 그 앞을 휘감고 흐르는 낙동강 물줄기를 따로 화천이라 했으며, 마을의 주산을 ‘꽃뫼’란 뜻의 화산(花山)이라 이름 지었던 것이다. 화천이라는 이름은 강가에 세워진 화천서원(花川書院, 경상북도 기념물 제163호)으로 남아 있다. 1786년에 건립한 이 서원은 겸암 류운룡을 모시고 있다. 류건춘의 제8곡시 화천(花川)을 들어보자.

서원을 품은 맑은 시내 백사장을 빙 돌렸는데(抱社清流繞白沙)
 산의 이름은 화산이고 아래 시내는 화천이라네(花名山下水名花)
 명륜당 높은 곳에 청금의 선비들 모여 있는데(倫當高處青襟集)
 팔곡이라 글을 읽는 소리 북쪽 물가까지 들리네(八曲絃聲動北涯)

류건춘은 강을 바라보았다. 낙동강 푸른 물굽이는 화천서원을 끌어안고 유장히 흐르고



하회구곡의 일곱째 굽이인 도포로 추정되는 강변



하회마을을 흘러가는 낙동강을 따로 화천이라고도 한다.



화천이라는 이름은 물가에 세워진 화천서원으로 남아 있다. 겸암 류운룡을 모시고 있다.

있었다. 새하얗게 빛나는 널따란 모래톱도 눈에 들어 왔다. 강 동쪽으로는 하회마을의 주산인 화산(花山)이 꽃처럼 피어나 있었다. 그래서 이 강물 이름도 화천(花川)이 아니던가.

셋째 구에서는 이렇게 좋은 터에 자리한 화천서원의 명륜당에는 ‘청금의 선비’들이 모여들었음을 자랑하고 있다. 1477년 조정에서는 학생들에게 푸른 깃이 달린 청금(靑襟)을 입게 했는데, 그로부터 공부하는 선비를 ‘청금선비’라고 불렀다. 그 선비들로 인해 하회구곡에 글 읽는 소리가 울리는 일은 당연하다.

제9곡 병암

하회마을 휘도는 물줄기 마무리 하는 바위 벼랑

화천서원을 지난 낙동강 물줄기는 광덕리를 끌어안고 급하게 휘돌면서 다시 서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이 굽이에는 맞은편 강가에 바위가 병풍을 이루고 있으니 제9곡 병암(屏巖)이다. 주민들은 바위 벼랑을 ‘부개밀’이라 부르는데, 부용대 하류에 있어 이런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제1곡 병산이 하회마을의 시작이라면, 제9곡 병암은 하회마을의 마무리가 된다.

사방으로 돌던 물결이 곧장 아래로 내달리는데(四面回波直下奔)
 너럭바위 앞의 깎아지른 절벽 병풍문이 되었네(盤磯削壁行屏門)
 깊은 못의 용이 포효하여 종담 골짜기 갈랐으니(幽龍吼裂鍾潭壑)
 구곡이라 바람 세차고 밝은 태양 어둑어둑하네(九曲風滔白日昏)

하회마을을 크게 휘감으며 산태극 수태극 돌아 흐르던 낙동강 물줄기는 하회마을을 뒤로 하고 이제는 서쪽으로 방향을 잡고 곧장 내달린다. 그러다 병암을 만난다. 병암 벼랑 아래의 종담에는 용이 살고 있었다. 이 못 속에 사는 용이 울어 종담의 골짜기를 가르다고 했다.

여기서 용은 서애 류성룡을 의미한다. 임진왜란 당시 중책을 맡아 국난을 잘 극복했고 후환을 경계하고자 《징비록》을 지은 유학자. ‘용의 포효’는 서애의 학문과 사상이 하회마을에서 널리 퍼져 나간다는 뜻이 아닐까. 용이 부리는 조화에 홀연 돌풍이 불어대고 태양도 가려져 어둑해지는 낙동강 풍광을 굽어보며 류건춘은 하회구곡 유람을 마치고 있다. 하회마을을



하회구곡의 마지막 아홉째 굽이인 병암. 하회마을을 휘돌아가는 산태극 수태극의 힘찬 물줄기가 여기서 마무리된다.

휘감아 흐르는 낙동강 푸른 물결 위로 류건춘의 마지막 구곡시인 합곡시(合曲詩)가 낭랑하게 울려 퍼진다.

그림 같은 절벽의 풍경 읊은 열여섯 편의 시(畫壁風烟十六詩)
 뱀엔 사족 더하기 어렵고 물은 헤치기 어렵네(蛇難添足水難坡)
 못난 나는 만년 주자의 무이구곡시 좋아하여(愚聲晚好紫陽曲)
 강가 집을 작은 무이구곡의 하나에 견주었네(敢擬江居小武夷)



여행 길잡이

안동의 하회구곡(河回九曲)은 하회마을 앞을 휘돌아가는 낙동강 본류에 조성한 구곡원림이다. 하회구곡의 아홉 굽이는 제1곡 병산(屏山), 제2곡 남포(南浦), 제3곡 수림(水林), 제4곡 겸암정(謙巖亭), 제5곡 만송(萬松), 제6곡 옥연(玉淵), 제7곡 도포(島浦), 화천(花川), 제9곡 병암(屏巖)이다. 물줄기의 길이는 총 6.5km에 이른다. 하회구곡은 하회마을을 영역에 있어 모두 걸어서 둘러볼 수 있다. 차량을 이용할 필요가 전혀 없다. 강 건너의 부용대는 만송 앞의 나루터에서 나룻배(양복 3,000원)를 타고 건너가면 된다.

자가운전

중앙고속도로 서안동IC → 34번 국도 → 풍산 → 916번 지방도 → 하회마을

숙식(지역번호 054)

하회마을에서 하룻밤 묵으면서 답사하면 숙식 해결과 답사 모든 것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하회마을에 숙소가 많다. 식당을 겸한 민박집도 여럿 있다. 안동간고등어, 안동국시 등도 맛볼 수 있다. 하회마을(관광안내 852-3588) 홈페이지 www.hahoe.or.kr에 자세히 나와 있다.

참조(지역번호 054)

하회마을관리사무소 854-3669, 문화관광해설 840-6974